

애국주의가 앓아간 우승



중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결승선 부근에서 치열한 대결을 벌이던 중국 선수에게 자원봉사자가 국기를 억지로 넘겨주려다가 우승을 놓치게 한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생긴 일이다.

이 대회에 참가한 중국의 허인리 선수는 우승을 놓고 에티오피아 선수와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결승선을 500m 앞둔 지점에서 갑자기 한 자원봉사자가 뛰어들더니 그녀에게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건네주려고 했다. 하지만 우승 각축전을 벌이던 허인리는 이를 받을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그 직후 또 다른 자원봉사자가 트랙 안으로 뛰어들더니 그녀에게 중국 국기를 억지로 건네주었다.

허인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국기를 들고 뛰는 게 쉽지 않았던지 수초 후 이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에티오피아 선수는 허인리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결국 허인리는 5초 차이로 우승을 놓치고 말았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자원봉사자의 황당한 행동으로 우승을 놓친 허인리였지만, 국기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중국 누리꾼들의 비난에 사과까지 해야 했다. 허인리는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국기를 던진 것은 아니며, 국기가 비에 흠뻑 젖은 데다 팔이 뻗뻗해 국기를 떨어뜨린 것뿐”이라며 이를 사과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자원봉사자가 국기를 건넨 것은 돌출 행동이 아니라, 대회 주최 측이 애초에 계획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한 대회 관계자는 “1위부터 3위를 기록한 중국인 주자는 반드시 중국 국기를 걸치고 결승선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방침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결승선 직전에서 치열한 우승 다툼을 벌이던 선수에게 국기를 건넨 것이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농부와 소, 판박이 미소가 더 흐뭇한 이유

마치 웃는 듯한 표정의 물소와 하얀 이를 드러낸 채 웃는 농부의 사진이 태국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진 속 주인공은 태국 중부 차이낫주에 사는 농부 수랏 패오켓(34)과 한때 팔려갈 뻔했지만 이제 그의 소유가 된 4살짜리 물소 텡꿈이다.

사탕수수과 카바사, 바나나 등을 재배하는 가난한 농부 수랏은 몇 달 전 주 정부가 개최한 농업축산 워크숍에서 가족을 이용한 농법을 배운 뒤, 지역 '물소은행'에서 2마리의 물소를 빌려 기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축산업을 시작한 그는 몇 주 전 할아버지 친구의 부탁으로 텡꿈까지 맡아 기르게 됐고, 소들과 함께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됐다. 특히 낮잠을 자는 소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 이빨을 드러낸 채 웃는 듯한 표정의 소와 얼굴을 나란히 한 모습, 물에 들



어간소 등에 올라탄 사진 등은 그를 유명 인사로 만들었다.

그러나 소 주인인 할아버지의 친구가 소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수랏과 텡꿈은 이별을 눈앞에 두게 됐다. 수랏은 텡꿈을 사들여 곁에 두고 싶었지만 월 6천 바트(약 200달러) 정도를 벌여 가족을 건사해야 하는 그에게는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운 좋게도 기회가 왔다. 그는 정들었던 텡꿈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네티즌들이 소를 살 수 있도록 십시일반으로 돈을 보내준 것이다. 며칠 새 13만5천 바트(약 4,000달러)가 쌓였다. 이 가운데 10만 바트를 주고 텡꿈을 사들여 곁에 둘 수 있게 된 수랏은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나를 선하게 봐준 사람들 덕에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연을 접한 지역 물소은행도 그가 더 많은 가족을 기를 수 있도록 소 4마리를 더 빌려주기로 했다.

안경 하나에 눈물샘 폭발한 선생님

미국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제자들로부터 깜짝 선물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15일 앨라배마주 헨츠빌 현지 WHNT 뉴스에 따르면, 리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 타일러 헨더슨은 교내 합창단 음악 감독으로 뮤지컬작 '요셉 어메이징' (Joseph and the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을 제자들에게 지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최근에 헨더슨 선생님이 색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대체로운 뮤지컬 공연을 충분히 즐기도록 돕고 싶었다. 이에 제자들은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해 돈을 모았고, 지난 9일 특별한 선물을 전했다.

풍선으로 가득 찬 학교 강당으로 걸어 들어온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편지와 함께 색 보정 안경을 건네 받았다. 그들은 실제 공연처럼 노래를 부르며 '선생님은 우리가 가진 고유한 색깔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색을 볼 수 있도록 도울 차례'라고 적힌 플래카드도 들었다.



헨더슨 선생님은 할 말을 잃고 제자들이 준 안경을 썼다. 그러자 한 제자가 “효과가 있어요?”라고 물었고, 선생님은 처음 보는 색의 향연에 너무 놀라 “그렇다!”고 답하며 무대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헨더슨 선생님은 “가슴이 너무 벅차서 학생들이 준 안경을 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선물을 받은 후 6~8시간 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면서 안경을 준 제자들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부활교회

St. Anselm's Episcopal Church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Blvd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요일&목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한국식 이발/염색 그레이스 이발관 Grace Barber Shop

- 이발 Haircut \$999
- 염색 Dyeing \$20
- 이발 & 염색 Haircut & Dyeing \$30
- 이발 & 샴푸 Haircut & Shampoo \$15
- 면도 Shave \$15

Tel. 626.810.2261
562.714.5238
18381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

